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

이 미 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s of Adolescents

Mi-sook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1월 11일), 수정일(1차 : 2008년 12월 18일, 완료일 : 2009년 1월 13일), 게재 확정일(2009년 2월 5일)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s of adolescent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three variables by adolescents' sex and age variables. The research method was survey and the subjects were 656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Daeje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 measuring instruments;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clothing behaviors and demographic attribu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t-test,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generally evaluated their bodies as middle level on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and had positive social self concept.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positive body image and social self concept tha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on clothing behaviors, 5 dimensions were emerged: clothing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y of clothing, clothing ostentation, clothing conformity, and clothing satisfaction. Third, there were close correlations among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s; body image and social self concept had close interrelationship each other. However, body image had close relationship with only clothing satisfaction dimension, whereas social self concept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all clothing behavior dimensions except clothing conformity. In conclusion, this results showed that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s have close interrelations, therefore, clothing play an important role to enhance adolescents' body image and social self concept.

Key words: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Clothing behaviors, Adolescents;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 청소년

I. 서 론

현대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경향은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윤진, 1993),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바람직한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외부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

[†]Corresponding author

E-mail: evanms@hanmail.net

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특성을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으로는 가족, 선생님, 또래집단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또래집단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또래집단과의 바람직한 상호관계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자기개념 및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외모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유력한 원천이며 한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타인에 의해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서 사용되는 사회적 단서이다(이은희, 2007).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추상적인 사고에는 미숙하여 구체적인 의복이나 외모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고 동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만남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또래집단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이미지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친구가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며 (Hendricks et al., 1963), 빈약하거나 부적당한 의복은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위축감을 일으키고(Ryan, 1966) 사회참여도 낮아지게 하였다(Francis, 1992). 그러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를 사회적 자아개념과 연관 지어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문 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시기로서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크게 적용되는 시기이다(Horn & Gurel, 1981). 따라서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자아정체감이나 사회성과 같은 내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복은 개인의 신체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의복행동은 또한 신체이미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간의 관계는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들(이금룡, 1998;

Richards et al., 1990)에서도 청소년기의 외모나 의복 행동은 자아정체감이나 사회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 과정에서 연령이나 성별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 청년기 전기의 청소년들이 후기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느끼며 이러한 불만은 자아존중감은 물론 또래관계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MacGillivray and Wilson(1997)도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연령과 성별이 주요한 변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며,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으로서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요소일 뿐 아니라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지니며 자신의 변화된 신체를 지각하고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신체적인 외모나 매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신체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사회적 가치관이나 통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Richards et al., 199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 문화의 날씬함에 대한 강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왜곡하여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경희, 2005),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이은희, 2007),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신을 더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미숙, 2000).

외모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사회발달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으며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 더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더 많이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한준상 외, 2000), 신체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Ryan(1966)은 친구들 간의 수용정도와 인기의 요인으로 외모와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임수진(2002)의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복은 신체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돌보아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고 성적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경 외, 2001; 송경자, 김재숙, 2005).

2. 사회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이란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교사 및 또래와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 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된 지각을 말한다(송인섭, 1994). 사회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친구, 학교, 교사들과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또래집단이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가치관, 태도, 행동유형을 공유하며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학습시키고 사회적 기술발달을 촉진시킨다(한상철, 1998). 또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획득하고 확고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찰, 자아신뢰감 및 자아존중감이 발달되므로(김승현, 1996), 또래집단과의 상호관계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개인의 신체적 외모는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Hendry(1978)는 지나치게 말랐거나 비만한 체격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성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TV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신체적 매력이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의복이 또래집단과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의복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청소년기의 정서나 행동, 학교에서의 학업성적, 교내활동, 또래집단 및 어른들과의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최윤미, 1999).

3. 청소년의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인간행동의 하나로서 자신의 의복에 대한 평가, 관심, 선택 및 사용 등을 의미한다. 의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외모의 부분이고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체의 연장으로서 개인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나 느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신체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추상적인 사고에는 미숙한 청소년기에는 구체적인 의복과 외모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므로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동료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의복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한준상 외, 2000).

Hurlock(1976)은 청소년기에는 의복이나 외모를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여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며 의복을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의복은 자아개념과 사회적 적응의 정도에 영향을 주며, 그들의 감정과 정서 및 개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정해자, 박찬부, 198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는 친구들 사이의 인기와 수용정도가 의복과 외모에 따라 많이 좌우되었고(이은미, 1985),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김양진, 강혜원, 1992), Steinberg(199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 기술 이외에도 유행을 선도하는 옷차림과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한편, MacGillivray and Wilson(1997)은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의복선택과 만족도에 차이가 보인다고 제시하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빠른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있어 연령과 성별이 주요변수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미자, 김구자(2000)는 여중생이 남자 중학생보다 유행성, 주의집중성, 동조성이 높은 반면, 정숙성과 의복만족도는 낮다고 하였으며, 심정은, 고애란(1997)은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고 타인의식적인 경향을 보이며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은희(2005)는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유행과 개성을 추구하며 심미성을 중시하는 반면, 정숙성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송자 외(2004)는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과시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경향이 높으며, 의복동조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고애란, 김양진(1996)은 남녀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을 조사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을 통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으며 의복을 통한 동조경향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고 하였고, 이부희 외(1996)는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과 의복과시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변인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해보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알아보고, 이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해 본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본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의복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

해 본다.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이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해 본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 측정도구와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매력 및 만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MBSRQ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인 전체적인 신체외모 평가척도(Global Appearance Evaluation Subscale)를 토대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8이었다.

사회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또래집단과의 사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송인섭(1994)의 자아개념 진단검사 중 사회적 자아개념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0이었다.

의복행동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고은주, 장남경, 2003; 이송자 외, 2004; 하주연 외, 2005)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행동 측정도구는 의복홍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 의복동조성, 의복만족성에 대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58~.82이었다.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대한 각 측정도구는 모두 5점의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그 외에 성별, 연령, 학교, 학년 등의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남녀 청소년으로, 본 연구를 위한 피험자로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656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출되었다(표 1).

<표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성별	연령집단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162(48.5)	145(45.0)	307(46.8)
여자		172(51.5)	177(55.0)	349(53.2)
전체		334(50.9)	322(49.1)	656(100)

4.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 100명을 편의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55~.80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7년 3월 7일~16일에 실시되었으며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설문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총 6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7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56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14.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t-test,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인 Global Appearance Evaluation

subscale의 7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평균점수는 3.03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중간정도의 평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신체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에서는 차이가 있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전기의 청소년들이 후기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이미숙, 2008; Richards et al., 1990)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사춘기의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 걸쳐 빠른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된 신체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신체의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안정기에 접어든 고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 판단된다.

2.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17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개념 점수는 3.39로 중간보다 좋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비교적 자신이 친구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표 2>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평균점수

집단구분	성별		t값	연령집단		t값	전체
	남자 (n=305)	여자 (n=349)		중학생 (n=332)	고등학생 (n=322)		
신체이미지	2.99	3.06	-1.77	2.94	3.11	-4.33***	3.03

***p<.001

로 보여진다. 한편, 사회적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개념을 조사한 임수진(2002)의 연구에서 남자는 3.37, 여자는 3.38의 점수를, 여자 고등학생의 사회적 자아개념을 조사한 장기영(2006)의 연구에서 3.28의 점수를 보여 남녀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임수진(2002)의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3. 청소년의 의복행동

1) 의복행동의 구성차원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홍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 의복동조성, 의복만족성의 5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2.14%로 나타났다(표 4).

의복홍미성은 의복에 관심이 많고 의복연출을 즐기는 등 의복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말하며 20.82%의 설명력을 보여 청소년들의 의복행동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의복의존성은 의복차림에 따라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말하며 15.08%의 설명력을 지녔고 의복과시성은 개성 있고 독특한 의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경향을 말하며 11.72%의 설명력을 보였다. 의복동조성은 친구들과 유사한 의복스타일을 선호하고 체

<표 3>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개념 평균점수

사회적 자아개념	집단구분		t값	연령집단		t값	전체
	남자 (n=305)	여자 (n=349)		중학생 (n=332)	고등학생 (n=322)		
평균값	3.35	3.42	-1.39	3.31	3.47	-3.07**	3.39

**p<.01

<표 4> 의복행동 구성차원의 요인분석

요인명	요인구성문항	요인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선회도계수
의복 홍미성	나는 옷을 꼭 사지 않더라도 웃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옷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웃이나 악세서리로 변화를 주는 것이 즐겁다. 나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본다.	.82 .81 .75 .67	20.82 (20.82) .82
심리적 의복 의존성	나는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나는 옷차림에 따라 기분이 명랑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78 .72 .69 .61	15.08 (35.90) .78
의복 과시성	나는 비록 시선을 끈다 해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옷을 입기를 즐긴다.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의 옷이라면 나는 눈에 띠는 옷을 선택하겠다.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83 .79 .65	11.72 (47.67) .77
의복 동조성	나는 친구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80 .72 .65	8.43 (56.10) .63
의복 만족성	나는 좋은 옷이 많은 편이다. 내가 입은 옷은 대부분 내 마음에 든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가 어렵다.(-)	.77 .71 .56	6.04 (62.14) .58

(-) 요인분석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택하려는 경향으로 8.43%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의복만족성은 의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6.04%의 설명력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의복행동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의복흥미성의 평균점수는 3.48로 청소년들은 비교적 의복에 높은 흥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의복과시성도 3.40으로 청소년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의복의존성의 평균점수는 3.27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의복 만족성은 3.05로 보통수준이었으며, 의복동조성은 2.79로 의복행동 요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하는 경향도 비교적 높은 반면 의복에 대한 만족은 보통수준이었고 친구들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차림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패션의 경향으로 ‘남과 비슷하다’는 것을 개성이 없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감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

청소년의 의복행동이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의복행동 요인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부분적으로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흥미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는 의복에 대한 흥미가 중간정도의 수준인 반면 여자는 의복에 대한 흥

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의복의존성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 모두에서 차이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의복 차림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과시성에서도 청소년의 성과 연령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개성 있고 독특한 의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동조성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복만족성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의복 및 의복생활에 대해 좀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개성 및 과시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심정은, 고애란, 1997; 이부희 외, 1996; 이은희, 2005) 결과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심리적 의존성과 과시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이부희 외, 1996)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의복동조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일부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정미자, 김구자, 2000)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치되는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친구들의 의복을 유행에 대한 정보원의 하나로 인식하여 유행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동조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의복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행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의복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조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친구들

<표 5> 성별·연령별 의복행동 요인의 평균점수

집단구분 의복행동	성 별		t 값	연령집단		t 값	전 체
	남 자 (n=307)	여 자 (n=347)		중학생 (n=332)	고등학생 (n=322)		
의복흥미성	3.09	3.83	-9.13***	3.42	3.53	-1.44	3.48
심리적 의복의존성	3.06	3.46	-5.18***	3.17	3.37	-2.50**	3.27
의복과시성	3.26	3.52	-3.44***	3.31	3.48	-2.01*	3.40
의복동조성	2.81	2.78	.72	2.79	2.78	.02	2.79
의복만족성	3.05	3.05	-.03	2.97	3.13	-1.99*	3.05

*p<.05, **p<.01, ***p<.001

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려는 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의 변화로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자신의 외모나 패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

I)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토대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이미지와 사회적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개념에 직접효과를 지녀,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는 사회발달 과정에서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신체적 매력은 사회적 자아개념 또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김양진, 강혜원, 1992; 임수진, 2002; Hendry, 1978; Ryan, 1966; Steinberg, 1993)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이미지는 의복만족성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이미지는 다른 의복행동 요인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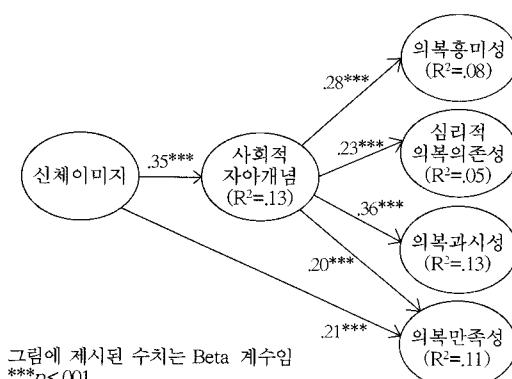
았으며 사회적 자아개념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가치에 따른 의복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사회적 자아개념과 같은 다른 중재변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의복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복행동 요인 중 의복만족성은 신체이미지로부터 직접효과와 사회적 자아개념을 통한 간접효과를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체이미지는 의복만족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결과는 신체이미지 또는 신체만족도가 의복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밝힌 여러 선행연구결과(이미숙, 2000; 이희남, 1985; 임경복, 1997)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아개념은 의복홍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 의복만족성 요인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의복에 대한 흥미가 많고 의복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독특하고 개성있는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의복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고려해볼 때, 사회적 자아개념은 의복행동 요인 중에서도 의복과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신체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사회적 자아개념은 의복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지님을 알 수 있었으며, 신체이미지는 의복만족성에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의복행동 요인에는 직접효과를 지니지 않으며 사회적 자아개념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행동은 신체이미지보다 사회적 자아개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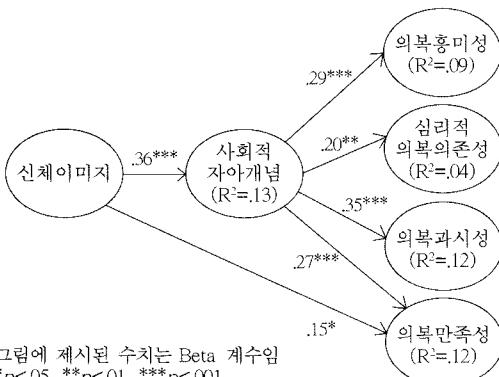
2)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간의 관계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청소년 집단별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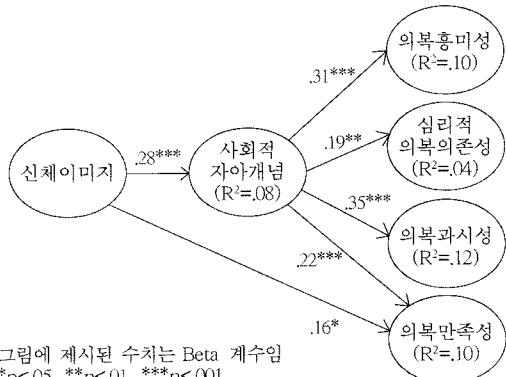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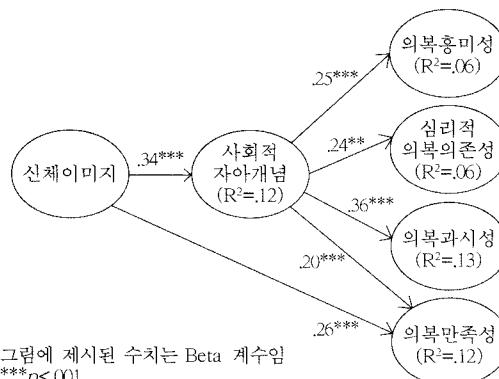
<그림 1>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전체



<그림 2>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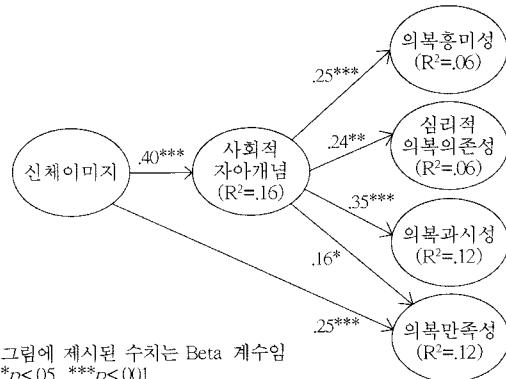
<그림 4>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중학생



<그림 3>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여자

각 집단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 결과와 전체적인 변인간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변인간의 영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이미지와 사회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보다 연령집단간에 많은 차이를 보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에서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개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으며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 더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더 많이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한준상 외, 2000)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내면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림 5>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고등학생

한편,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만족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남자와 중학생 집단은 의복만족성이 신체이미지보다 사회적 자아개념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반면, 여자와 고등학생 집단은 의복만족성이 사회적 자아개념보다 신체이미지와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와 고등학생 집단이 남자와 중학생 집단보다 자신의 신체에 더욱 많은 관심을 지니고 외모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변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를 청소년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보통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개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복행동은 의복홍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 의복동조성, 의복만족성의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홍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이 높았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심리적 의복의존성과 의복과시성, 의복만족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개념 및 의복만족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자아개념은 의복홍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 의복만족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이미지와 사회적 자아개념간의 관계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에서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개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와 중학생 집단은 의복만족성이 신체이미지보다 사회적 자아개념과 더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반면, 여자와 중학생 집단은 의복만족성이 사회적 자아개념보다 신체이미지와 더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볼 때,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지니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판단되며, 또한 의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의복행동을 즐기며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사회적 자아개념을 주요 연구변인으로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을 통하여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의복행동 요인 중 청소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제시된 일부 의복행동 요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의복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복행동 요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의복은 신체이미지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보여지므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의생활을 위해 의복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사회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예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고은주, 장남경. (200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연구를 통한 패션마케팅 전략제안. *대한가정학회지*, 41(12), 13-26.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승현. (1996).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 송인섭. (1994). 자아개념 진단검사.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심정은, 고예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윤진. (1993). 청소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 이금룡. (1998). 의모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1, 1-18.

-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 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복식학회*, 58(6), 96–109.
- 이부희, 고애란, 김양진. (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5), 131–144.
- 이송자, 곽인숙, 이수정. (2004). 남·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467–474.
- 이은미. (1985). 여자 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 (2005).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1007–1015.
-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49–58.
- 이희남. (1985).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 및 신체충실킬지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상지대 논문집*, 6, 387–408.
- 임경복. (1997).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2), 195–205.
- 임경희. (2005). 신체이미지 수용과 여학생의 외모 가꾸기. *보건과 사회과학*, 17, 107–132.
- 임수진. (2002).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기영. (2006).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스포츠참여 형태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자, 김구자. (2000). 중학생의 반사회성과 남성·여성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4(8), 1276–1287.
- 정혜자, 박찬부. (1989). 여고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남녀 고등학생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1–20.
- 최윤미. (1999). *현대 청소년 심리학*. 서울: 학문사.
-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 의류학회지*, 29(5), 715–726.
- 한상철. (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Francis, S. K. (1992). Effect of perceived clothing depriv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social particip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2), 29–33.
- Hendricks, S. H., Kelly, E. A., & Eicher, J. A. (1963). Senior girl'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10(3), 167–172.
- Hendry, L. B. (1978). *School, sports and Leisure*. London: Falmer Press.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urlock, E. 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s*. NY: Aron Press.
-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43–49.
- Richards, M. H., Boxer, A., Peter, A. C., & Albrecht, R. (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321.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einhart & Winston Inc.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 New York: McGraw Hill.